

2023 년 6 월 23 일

## 65 세 넘는 주민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촉구

NSW 보건부는 지역사회 내에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독감전염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65 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일반의나 지역 약국을 통해 무료인 인플루엔자(플루) 백신접종 약속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.

6 월 4 일에서 17 일 사이의 지난 2 주 동안 NSW 주 내에서 9 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독감 진단을 받았고 가장 최근 데이터가 밝힌 바로는 독감과 유사한 질환으로 6 월에 NSW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.

NSW 수석 보건관 케리 찬트 박사는 6 개월 이상의 연령이면 누구나 가능한한 빨리 플루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하지만, 65 세 이상인 주민을 포함한 우선순위 그룹이 올 겨울 인플루엔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.

“현재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질병으로 더 큰 숫자의 사람들이 NSW 응급실을 찾고 일부는 입원을 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” 라고 찬트 박사가 밝혔다.

“나이가 많을수록 인플루엔자 때문에 심한 질환으로 고생할 위험도가 더 높으므로, 올 겨울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바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독감에 걸릴 확률도 줄이고 혹여 독감에 걸린다 해도 그 때문에 입원해야 할 확률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.”

인플루엔자로 인해 심한 질환을 앓을 위험도가 더 높다고 간주되어 무료로 플루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.

- 나이가 65 세 이상인 사람
- 6 개월에서 5 세 미만의 아동
- 호주 원주민으로 6 개월 이상의 연령인 사람

- 임신한 여성
- 당뇨, 암, 면역계 이상, 비만, 심한 천식, 신장 심장 폐 혹은 간 질환 등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지닌 사람.

다음과 같이 하면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코비드-19 이나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돕는 데 일조할 수 있다.

- 권장되는 독감 및 코비드-19 백신들을 빠짐없이 접종할 것
- 아프면 집에 있을 것
- 혼잡한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
- 모임은 옥외에서 혹은 넓고, 문과 창문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가질 것
- 자주 손을 씻거나 소독할 것
- 코비드-19 이나 독감으로 인해 심한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지금 얘기하여 병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,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이며 항바이러스 약제 사용 자격 여부에 대해 토의 하는 등 미리 계획을 세워 놓을 것
-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코비드-19 이나 독감 양성판정을 받았을 경우 심한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더 높은 사람들을 방문하지 말 것
- 사랑하는 사람들이 취약 층인 경우 특히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코비드-19 확인을 위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것.

인플루엔자 관련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은 NSW 정부 [웹사이트](#) 이다.